

• 풍향계 •

대덕벤처聯, 4대 회장에 백종태 사장 추대



백종태 사장

대덕밸리벤처연합회 4대 회장으로 씨아이제이(CIJ) 백종태 사장(47)이 추대됐다.

연합회 추대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백종태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회의는 신임 회장의 조건으로 대덕밸리에 본사를 둔 벤처

기업의 CEO로서 주위의 신망이 두텁고, 업력이 2년 이상이 돼야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대상자들을 물색한 끝에 백사장을 신임회장으로 결정했다.

원종욱 추대위원장은 “백종태 사장은 한밭벤처파크 기업 협의회장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활로를 마련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충분히 검증이 된 인사”라며 “차기 회장으로 대덕밸리를 세계적인 벤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종태 사장은 “앞으로 2~3년은 대덕밸리 기업들의 도약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전망된다”며 “여러가지가 부족하지만 지역 내 기업들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0월 22일에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공식 선출할 예정이며, 회장의 업무부담을 덜면서 효율적인 회원사 지원을 위해 상근부회장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수 현회장은 회장직 이임과 동시에 2년 예정으로 미국 텍사스대에 교환교수로 건너가 재충전을 하는 한편 대주주로 있는 지니텍의 차기 아이템을 모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사장이 이끄는 씨아이제이는 휴대폰이나 중계기 등 무선기기에서 마이크로 대역 주파수를 선별하는 장치인 듀플렉서를 개발하는 정보통신 벤처기업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10여년 근무하며 책임연구원까지 지낸 백사장을 비롯한 3명의 연구원이 주축이 돼 지난 2000년 3월 창업했다.

한남대, 중국가계획위원회 ‘기업 파트너링’

“10여년간 쌓은 인맥을 벤처기업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대학이 벤처기업의 중국진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한남대학교(총장 신윤표)는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국진출을 원하는 벤처기업들에게 사업파트너를 연계시켜주는 ‘파트너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국가 계획위원회를 통해 중국 내 파트너를 찾아주는 사업이다. 양국기업간의 공식적인 첫 만남은 오는 23부터 이틀간 베이징 중관촌에서 진행된다.

모바일 관련 기술, 유선네트워크, 광통신분야, 디지털AV 등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 IT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기업들의 기업소개서는 한남대측에서 취합,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로 보내 해당 분야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트너 물색작업을 펼치게 된다.

중국의 경제기관을 통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IT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대기업들과 한국의 IT기업들이 한꺼번에 미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남대 중국경제학부 정명기 교수는 “중국 비즈니스는 반드시 중국의 산업정책을 이해하고 필요한 관시(關係)를 갖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다행히 한남대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관료들이 현재 각 산업분야의 실무책임자급으로 승진해 있어 관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이경수 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는 중국과 어떻게 공존공생 관계를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면서 “한남대가 10여년 동안 쌓아온 고급인맥들을 벤처기업들을 위해 공개하는 것은 21세기형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국가계획위원회는 주요 경제 및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우리의 옛 경제기획원 해당)으로 경제정책에 관한 최고의 정보와 권력을 갖고 있으며, 한남대는 지난 1995년부터 7년간 이 기관의 관료 150여명을 초청, ‘시장경제’를 교육시켜왔다.



▲ 대덕밸리와 중국 중관촌 협약식

• 신제품/신기술 •

에스아이비, 기름·녹조 해결사 ‘포마스’

물에 떠 있는 기름이나 녹조류를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수질 정화장치가 개발됐다.

대덕밸리 환경벤처기업 에스아이비(대표 주대성)는 물을 탁하게 하는 부유물질을 비롯해 바다기름, 바다 퇴적물까지 도정화하는 ‘포마스’ (POMARS)를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포마스’는 오염물질을 화학반응을 시켜 뭉치게 하고 이를 미세 공기방울 형태로 수면위로 띄워 제거 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침전시키는 기존 정화방식과 대조적인 이른바 용전공기부산공법이다.

특히 이 제품은 처리효율이 높다. 지금까지 침전된 오염물을 정화하려면 2시간 이상 소모돼야 했지만, 이 제품은 10~15분이면 수면 위로 오염물질이 떠올라 간단히 치우기만 하면 된다. 또한 제품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수질을 장기간 맑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쟁업체들과 구별된다.

또 이동하면서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장치인 ‘마스’ (MARS)를 개발했다. 마스는 수질정화장치를 부표로 띄어 배로 이동시켜 수면 위로 부상된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시스템이다.

회사측은 이 제품이 대청댐을 비롯 팔당댐, 부산아시아경기장,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저수지 등에 제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의 : 042-476-0072

표준연, 침입탐지 광섬유 센서 개발

광섬유를 이용해 침입자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광섬유 센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측정표준부 권일범 박사팀은 대덕밸리 광통신 부품 벤처기업인 금오통신과 함께 침입 탐지용 광섬유 센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광섬유 센서는 그동안 해외에서는 상용화되었으나 기술이전을 기피해 국내 관련 업계에서 기술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이 센서는 조그만 실내 바닥에 광섬유를 격자 형태로 매설해 침입자가 광섬유를 밟을 때 발생하는 압력에 따라 광섬유 내부를 흐르는 빛의 위상변화를 통해 외부의 침입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이 센서는 광섬유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간섭에 의한 위상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디지털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등 광대역의 신호조절 기능을 갖도록 개발돼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으며 주성분이 유리재질로 이뤄져 부식에 강하고 전자기파에 의한 잡음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의 : 042-868-5326



• 행사안내 •

‘임베디드시스템 개발’ 무상 교육 실시

우송공업대학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주문식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임직원 직무향상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아 래 —

- 명칭 : 임베디드시스템 개발 교육
- 일시 : 2002. 10. 14 ~ 10. 17
- 장소 : 우송공업대학

- 대상 :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임직원
- 주최 : 우송공업대학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 비용 : 무료 교육 (교재 제공, 개발장비 실습 교육)
- 강사 : 우송공업대학 전자정보계열 김원 교수
- 신청 : 담당 부서에 전화, 팩스 또는 e메일 신청
- 협력 : 아이뉴 정보통신
- 문의 :
 - 전화 : 042-629-6359
 - 팩스 : 042-629-6360
 - e메일 : kimwon@woosongtech.ac.kr